



현신봉사 마인드, 함께 잘사는 한인사회 건설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남문기 회장

남문기 뉴스타 부동산 그룹 회장이 최근 28대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총회장에 취임하고 왕성한 활동을 재개했다. 환한 웃음과 특유의 친근한 유머로 가는 곳마다 활력소를 불어넣는 성공신화의 주인공 남문기 회장을 만나봤다.

건강은 어떤가?

이제까지 간암 수술을 여섯 차례 받았다. 간이라는 게 그렇다. 평소 피로를 많이 느끼면 안되는데, 일을 줄인다면 서 자꾸 늘리게 된다. 정신이 육체를 뛰어넘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건강 때문에 혼자 걱정도 하는데 음식 조절하고 가급적 쉴려고 노력하고 있다. 괜찮을 것이라 믿는다.

왜 골치 아픈 분규단체인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총회장을 맡았나?

내가 2009년에 미주 한인회 총연회장을 맡아 2011년 6월 30일까지 역임했다. 내가 미주 총연회장을 그만둔 이후 지난 8년 동안 미주 총연이 분규단체로 전락했다.

사실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는 수 없이 많은 미주 한인 단체들의 대표단체가 될수 있는 단체인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해 10월에 간암 수술할 때 각지의 한인 회장들이 나를 찾아왔다. 그때 내가 몸이 아프더라도 죽지 않는 이상 총연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분들이 해결할 수 있으면 굳이 내가 안 나섰을 것이다. 미주 총연이 위상을 회복하고 미주 사회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면 미주 총연 회장직은 그만둘 생각이다.

지난해 여름 타운내 흠티스 쉘터 건립과 방글라데শ 주민의회 분리안 저지 캠페인을 주도했다. 당시에 활동이 뜹었던 시기였는데 저돌적으로 뛰어들어 사람들이 다들 놀랐다

나는 LA 한인회장을 했던 사람이다. 사실 한인들에 의해 부자가 됐고, 많은 한인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그래서 한인 사회에 대한 무한책임을 느끼고 있다. 타운내 흠티스 쉘터 설립 건이나 방글라데শ 주민 의회 분리안을 저지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의아



남문기 뉴스타 부동산 그룹 회장이자 28대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총회장이 본사에 방문하여 한국TV 스튜디오에서 사진 촬영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다. 남문기 회장은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특유의 유머로 분위기를 밝게 이끌어 갔고, 특히 많은 한인들이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인터뷰 내내 그가 한인 사회를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애정을 쏟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해하고 심지어 저희 뉴스타 부동산에 이전트들 조차도 사태의 심각성을 금방 깨닫지 못한 분들이 많았다.

도미노처럼 타운이 한번 혼들리면 무너질 수 있다는 사태의 심각성을 나는 처음부터 알았다.

당시 밤잠 안자면서 캠페인에 올인 했고 돈도 많이 썼다. 뉴스타 부동산에서 월급 받는 직원들은 캠페인에 모조리 동원시켰다. 직원들을 투표소 일로 전부 동원시키고 사무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사무실을 셋대로 막아놓기 까지 했다.

주민의회 분리안 투표가 있던 날 유권자 2만명을 버스를 대절해 투표소로 실어 날렸다.

그날 밤 11시 40분에 마지막 투표자가 나왔는데 그분과 식사하면서 고맙다고 했다. 투표에 참여해 준 많은 한인들에게 큰 절이라도 올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투표 끝나고 뉴스타 에이전트들이 투표장 안파을 마지막으로 청소했는데 쓰레기가 80봉지가 나왔다.

투표에 참여해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LA 한인회장으로 활동할 당시에는 미주 동포들의 참정권 문제에 앞장섰는데 지금 미주 총연회장으로서

의 사업계획도 그 연장선상인가?

LA와 오렌지 카운티에 백만 달러 이상의 집을 소유한 한인들이 셀 수 없이 많다. 경제적 여유를 누리는 한인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인데, 이제는 한인들이 2, 3세들을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 정치력 신장에 주력할 때다.

나는 동포사회에 참정권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부단히 활동해왔고 참정권에 대한 책도 썼다. 동포사회 권익을 찾기 위해서 투표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기 때문이다.

현재 영주권이 있는 분들은 미국 시민권을 빨리 취득해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 꼭 참여하시기 바란다. 65세 이상 시민권자는 한국 복수 국적을 취득해 내년 한국 국회의원 선거, 2022년 한국 대선에 참여해 모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LA 시의원에 데이빗 류에 이어 잔 리까지 한인 시의원이 두명이 배출됐는데, 이제 한인 LA 시장, 주지사의 꿈을 꿀 차례다.

남문기 회장 약력

- 1980년 건국대 법정대학 행정학과
- 1982년 건국대 대학원 경영학과
- 1988년 뉴스타부동산 창립
- 2006~2008 LA한인회장
- 2008년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총회장
- 2009년 23대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총회장
- 2011년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회 위원장
- 현 28대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총회장,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 의장



한국정부와 내가 공감한 철칙이 있다.

재외동포법 입안은 재외 동포 사회를 알고, 재외동포들의 권리와 진정으로 위하는 재외동포가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곳에서 비례 대표가 자꾸 나와야 한다, 그래야 동포사회가 발전한다.

타에서 그동안 판 땅이 아마 경상남도 보다 더 클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착이 있어야 한다. 조금한 집착은 안되고 여유있는 집착이 필요하다.

꿈을 실현하려는 열정, 그리고 감동을 주는 경영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감동을 주는 경영은 커뮤니티와 함께 하는 현신봉사 마인드를 의미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욕심 많으면 절대 성공 못한다.

나 혼자 부자되려고 하지 말고 같이 부자되려고 해야 한다. 함께 잘사는 한인사회 건설이 내 철칙이다.

미주 한인 최대 부동산 그룹인 뉴스타 그룹을 설립한 성공신화의 비결은 뭔가?

1982년 단돈 300달러를 들고 미국으로 이민왔다. 닥치는대로 청소부터 시작했는데, 화장실만 2만개 닦았다.

뉴스타 부동산을 설립해, 직원이 한창 많을 때는 2,300명에 이르렀고, 뉴스